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 례 12:15

429
2020.12.6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
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오늘의 주요기사

- 2면 함글함울 특집 “생각하여 보라”
- 3면 교계 소식
- 4면 양육클래스 소식
- 5~6면 교회 소식
- 7면 목회칼럼
- 8면 공동체 소식

교회일정

- 12/6(주일) 대림절 2
- 12/13(주일) 대림절 3, 정기당회
- 12/20(주일) 대림절 4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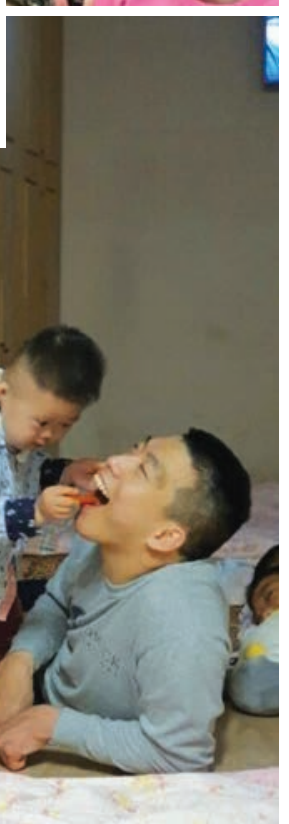


새벽녘이 되어야 겨우 잠이 듭니다

병이 깊어 가정과 복지시설로부터 외면당한 장애우들이
지내는 곳, 식구들 모두가 용변 처리가 안 되며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한번 돌아누울 수도 없는 장애우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 상태로 눈 감고 천국 갔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365일 오전 내내 목욕시킬 때, 양치질할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온몸에 비누칠한 상태로 집 밖으로 뛰쳐 나갈 때면
처절한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용변 처리가 안 되어
정상인들보다 더 많은 식사량과 수없이 벗어내는 옷들
때문에 목욕 후 옷 갈아입히는 일이 참 힘듭니다.

옷만 입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찢어내는 장애우들이기에
이번 주님의 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의류 지원은
저희들에게는 시원한 생수 같은 것입니다.
저희 소망의 집의 밤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장애우들 모두가 정신적으로 혼란하여 기저귀를
착용하고도 수없이 화장실 가서 변기물을 얹어져 먹고
문을 수시로 열고 닫는 요란한 풍경 속에
겨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듭니다. > 5면으로



함줄함울 2020 캠페인 “생각하여 보라”

소비를 생각하다

일곱 번째를 맞은 “주님의 서재”에서는 ‘소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책 세 권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직업, 여행, 배움, 시간, 사랑, 믿음, 헌금, 가정, 기도, 거룩 등을 주제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 주제들에 대하여 공동체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책, 또는 새로운 주제, 좋은 책 한 구절 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면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 계획에 넣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독후감도 보내주세요!

“책 읽어주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연재글입니다. 이번 호에는 습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함줄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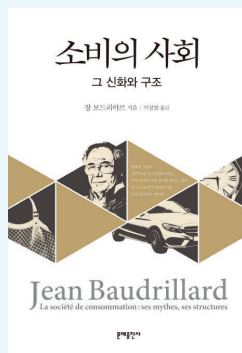
주님의 서재 ⑦ 소비를 생각하다

생각하는 소비, 미닝아웃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을 소비합니다. 필요한 것을 클릭 한 번에 주문하고, 하루 안에 배송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런 소비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소비 트렌드는 ‘미닝아웃(Meaning Out)’입니다. 신념(Meaning)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Coming out)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제품의 품질, 기능, 가격뿐 아니라 환경,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남들을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정치적·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에 적극적으로 표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 활동에 사회적 의미를 더함으로써 환경과 미래, 나눔을 생각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소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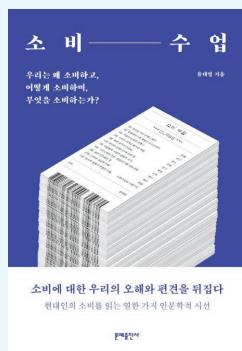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장 보드리야르 / 이상률, 문예출판사, 1992

새로운 소비 개념을 통해 현대사회를 분석한 보드리야르의 명저.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사회 이론가로 이름을 떨친 장 보드리야르는 사물(상품)의 소비를 사용가치의 소비보다는 행복, 안락함, 사회적 권위, 현대성 등의 소비로 규정한다. 이러한 착상을 통해 그는 사물을 기호로 파악하고, 사회를 언어의 체계로 해석한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특정 사물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지 않고 사회적 차이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며, 이런 해석 방식을 기초로 ‘사회적 차이화’의 이론을 만들어낸다. 『소비의 사회』는 보드리야르의 이 같은 혁신적인 이론을 전개한 책이다.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 정의하고 상품의 소비란 사용가치의 소비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며 소비에 소비의 본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개념을 통해 현대사회의 본질을 분석한 사회학서다. 현대 사회학에서 데이비드 리스만의 《고독한 군중》 이후 최고의 걸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소비 수업〉윤태영, 문예출판사, 2020

소비가 모든 것이 된 시대, 소비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 사회를 살펴본다. 현대인은 매일 무언가를 소비한다.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식사하고,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는 모든 행위는 소비로 시작해 소비로 귀결된다. 현대인에게 소비는 단순히 ‘재화’를 소비하는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현대인은 어떤 물건, 어떤 공간, 어떤 문화를 소비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유행, 공간, 장소, 문화, 광고, 육체, 사치, 젠더, 패션, 취향 등 저자가 선별한 열한 가지 키워드는 현대인의 일상은 물론, 가장 은밀한 곳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소비의 의미를 찾는데 중요한 길잡이로서 작용한다. 최근 물질적 소유보다는 공유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특색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 공간소비, 재미와 의미를 공유하는 경험소비, 과시보다는 내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문화소비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처럼 공유와 경험이 소비의 최대 화두로 자리를 잡은 지금, 저자는 과시적이고 중독적인 소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깨어 있는 소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는 제언한다.



〈상자 세상〉윤여림 지음, 이명하 그림, 천개의바람, 2020

더 많이, 더 빨리 소비하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상자들이 보내는 묵직한 이야기. 흰 툇! 속! 뽕! 아파트 각 층, 각 호에서 버려진 택배 상자들은 쌓이고 쌓인다. 어느새 아파트보다 더 높이 쌓인 상자들, ‘배고파!’라고 외치더니 갑자기 상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적우적, 찹찹, 와구와구 먹어 치우기 시작한다. 과연 세상을 집어삼킨 상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상자에 집어 먹힌 사람들과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 책은 시의성 높은 주제인 과소비, 쓰레기, 환경 등의 이야기를 ‘상자’라는 상징적인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다. ‘상자’는 사람의 무분별한 욕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버려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 특히 ‘상자’를 의인화하여 생각과 감정을 넣으면서 이 그림책의 이야기성은 더욱 확장되어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



책 읽어주는 부모 ⑦ 습관

좋은 습관이라는 선물

여러분은 매일 반복하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일상적으로 꼭 해야 할 반복적인 일이 아닌, 안해도 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 가고 있는 습관 말입니다.

요즘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반복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무척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활에 적응이 되고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사람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처럼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습관이 완전히 체득된다면 그 습관으로 인해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오랜 시간 반복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은 바로 이런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시간을 계획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특별한 계획 없이 있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다른 일들도 계획하게 되고 매일 그 일상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베갯머리 독서를 하기로 했다면, 9시가 되기 전에 잠자리를 준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전에 목욕을 마쳐야 하고 또 그전에 내일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 책을 읽어주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의 책읽기는 그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만들기에도 더욱 좋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지만 그 나이에도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거나 하루를 마감하며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역시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챙겨보는 일일드라마처럼, 시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켜게 되는 저녁뉴스 시간처럼. 오늘부터 잠자기 전 시간을 정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자녀의 삶에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교계 소식

기후위기 극복 향한 범교회적 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 등 발족



총회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 보도(11월 26일)에 의하면,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구가 되어 가고 있는 ‘기후위기’의 시기에 한국교회가 범교회적 운동으로 이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교계 각 분야에서 기후 정의 운동을 향한 연합과 협력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0년 11월 17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신학자들이 모여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을 출범했다. 이보다 앞선 11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도 총회에서 핵심주제사업의 하나로 기독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한 플랫폼을 구성해 회원교단과 연합기관, 현장 교회들의 참여를 유도해 교회 전체의 핵심 선교과제로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을 채택했다. 한편 11월 18일에는 기독교회관 2

층 조예홀에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출범 준비 간담회가 열렸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준비위원회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와 성서한국을 비롯한 사회선교단체들의 연대체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기독교 시민운동단체, 그리고 교회 연대 조직으로서 녹색교회 네트워크, 그리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등 기독교 환경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15일 발족식을 앞두고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의 나아갈 방향과 조직을 구상하기 위한 사전 간담회로 개최된 것이다. 이 모임에는 377개 단체와 7,500명의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함줄함줄

선교 소식

2020 105-1차 총회파송 선교사 훈련을 마치며



2020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해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마도 전 세계인들이 2020년을 코로나의 해로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으로 저희 가정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10월 12일부터 6주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된 105-1차(66기) 총회파송 선교사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1단계로 잠시 완화된 시점이었어서 대면훈련으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이번 기수는 국내에서는 뵈기 힘들었던 귀한 현장 선교사님들과 교수님들을 감사하게(?)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와 교단의 선교를 이끄신 서정운 총장님, 이광순 총장님 외 강사 40여명, 개인과 교회 43건의 후원 등이 총동원되어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책임감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훈련 기간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도입된 ‘디브리핑(Debriefing)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세심하게 기획된 훈련과정을 지나며 모든 훈련생들은 남은 인생을 다 드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점차 마지막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

는 담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현장선교사로서의 사명에 순종함과 동시에,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리라 잘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V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한국인 목회자에게는 아직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상황처럼 V국 역시 한인 목회자들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선교 상황을 연구하면 할수록 답답한 현실을 보게 되어 두렵기도 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디모데, 그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면을 빌려 주님의교회 소속 선교사로 총회의 파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화수 담임목사와 당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선교위원회 손영익 장로님 외 모든 선교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차별과 냉대를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위로하고, 이방인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환, 한주희 선교사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예배, 예식용어 편 7

예배를 대신해서 봐줄 수는 없다

예배봐준다(×)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개업예배를 봐준다”, “구역예배를 봐준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행위이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예배를 봐준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예배는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행위요, 응답하는 행위이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드리거나 봐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치 “점을 봐준다”는 미신적인 용어를 상키게 하는 “예배봐준다”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잘못된 용어이다.

헌금(×), 봉헌(○)

한국 교회의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 순서는 원래 봉헌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 예배 속에서 봉헌의 순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헌의 의미는 단순히 돈이나 예물을 드리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적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즉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성을 다하여 경청한 무리들이 스스로 우러나는 감사의 응답으로 내어놓는 모든 마음과 정성의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순서를 ‘헌금’이라는 용어로, 즉 단순히 돈을 바치는 행위로 지칭하는 것은 봉헌의 의미를 아주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금’이라는 용어보다는 ‘봉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마땅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줄 정리

교회 소식 | 양육클래스

가을학기 온라인 양육클래스를 마치며

지난 2월부터 온 땅에 창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밝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지난 송구영신예배의 사진이 도리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이미 오늘날 삶의 모습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현상은 우리네 신앙생활의 모습마저 뒤바꿔놓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회가 아닌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상치도 못할 일이 일어나

게 되었고, 함께 모여 서로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던 겨자씨 모임은 교회에서 준비된 영상을 개인적으로 시청한 후 온라인을 통해 나눔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접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참 신앙의 보람을 느끼던 여러 가지 봉사와 선교활동 역시 사실상 많은 제약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워진 삶에 신앙생활의 길마저 여러 모양으로 막힌 듯하여 더욱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신앙의 돌파구가 되고자 양육분과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양육클래스를 준

비하여 신청하신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매주 영상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온라인 양육클래스도 '성경과 교회역사, 찬양과 기도, 문화와 선교와 신앙교육' 등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들을 가지고 지난 9월부터 11월 까지 3개월여 시간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호응도 대단했습니다. 1,200여 성도님들이 신청하셔서 매주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에 대한 피드백들을 보내주셔서 서로 소통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늘 세상의 문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

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세상에 참 위로와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처 주님의 길을 다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지만 말씀과 역사, 찬양과 기도 등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 그 뜻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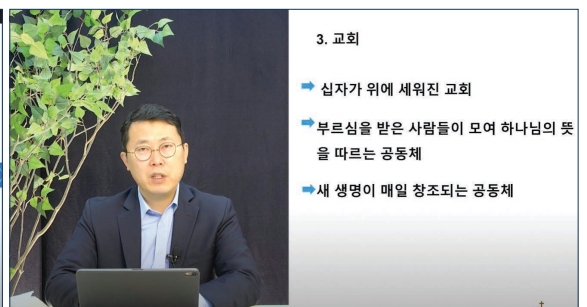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양질의 강의를 전하고자 밤이 늦도록 준비하시고,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며 애써 주신 우리 교역자분들과 영상을 통해 함께 열심히 신앙을 세워가고자 노력하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주영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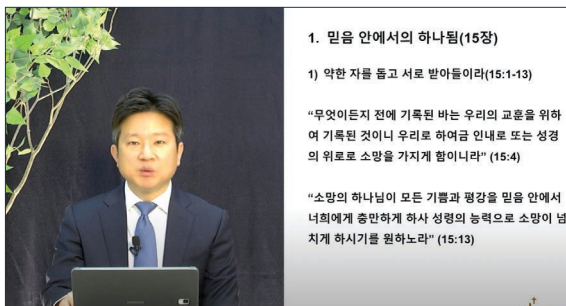
박주영 목사 _ 종교개혁 이야기



윤경수 목사 _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이은석 목사 _ 알기쉬운 계시, 그리고 요한계시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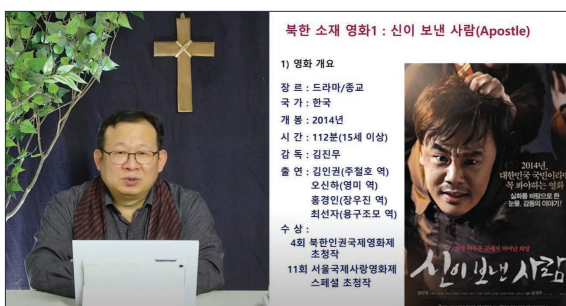
정창화 목사 _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종성 목사 _ 고단한 삶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 II



이대혁 목사 _ 슬기로운 정독(精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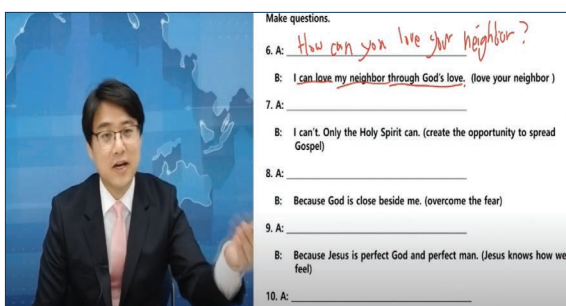
허준 목사 _ 영화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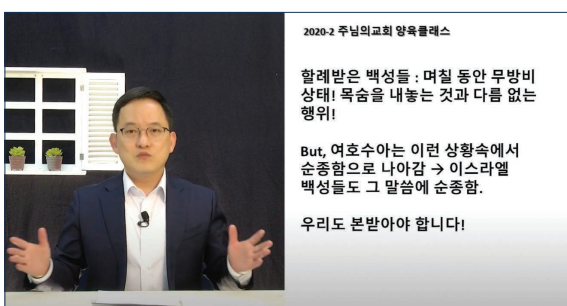
한시영 목사 _ 성경 속 하나님의 질문과 우리의 기도



이은미 전도사 _ 해피맘스쿨(BPC)



이진희 목사 _ Important Questions in the Bible(English class)



황바울 목사 _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우는)인생 이야기



이은미 전도사 _ 아름다운 부모학교(BPC)

사역 보고 | 복지부

장애시설 지원을 위한 의류 모으기 행사

저희 주님의교회에서 지원하는 장애 인시설은 15군데입니다.

제가 2020년부터 구제복지분과 복지 부장을 맡아서 시설 점검 및 연장 여 부를 위하여 방문해야 하는데 코로 나로 인하여 방문을 할 수 없었기에 연장요청 사유 및 기도요청을 이메일 로 받던 중 한 시설에서 기도요청사 항으로 용변 처리가 어려운 장애자 의 갈아입힐 헌 의류가 절실하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 월에 기도요청이었지만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질 않았기 에 그냥 지나치려 하였습니 다. 그렇지 만 계속 제 마음에 우리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명이 조 금씩 집 장롱에 입지 않는 옷을 가져 오면 어려움에 처한 시설을 돕지 않 을까 하며 기도하며 결심을 가지고

담당목사님과 장로님과 상의하여 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정 상적이지 않은데 과연 교인들이 많 이 참여할까? 안 모이면 어떡하지? 괜히 일을 추진한 것 아닌지 고민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라”라는 잠언 16:9과 19:21 말씀 이 떠오르며 편한 마음으로 진행하 였습니다.

교회 광고가 나가고 (특별히 담임목 사님께서 구두광고를 하심) 많은 성 도님들이 몇 점씩 가져오셨고, (성도 님 한 분은 상 하의 100점을 기증하 심) 전체 약 상 하의 3,000점이 수집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고 필요한 10 곳에 골고루 나누어 주고 우리 교회



의 사랑나무까지도 필요한 만큼 전 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필 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 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행사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행사에 참여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김형세 안수집사 / 복지부장

감사 편지 | 소망의 집

전쟁터와 같은 소망의 집, 섬김의 소명을 다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심에 감사 올립니다.

병이 깊어 가정과 복지시설로부터 외면당한 장애우들이 지내는 소망의 집 입니다.

식구들 모두가 용변 처리가 안 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한번 돌아누울 수 도 없는 장애우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 상태로 눈 감고 천국 갔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365일 오전 내내 목욕시킬 때 양치질 할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온 몸에 비누칠한 상태로 집 밖으로 뛰쳐 나갈 때면 처절한 공허함이 몰려옵 니다. 반복되는 이같은 사항은 천국과 지옥 차이일 것입니다. 장애우들의 용변 처리가 안 되어 정상인들보다 더 많은 식사량과 수없이 벗어내는 옷 들 때문에 목욕 후 옷 갈아입히는 일이 참 힘듭니다.

또한 옷만 입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찢어내는 장애우들이기에 이번 주님의 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의류 지원은 저희들에게는 시원한 생수 같은 것입니 다. 저희 소망의 집의 밤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장애우들 모두가 정신적으 로 혼란하여 기저귀를 착용하고도 수없이 화장실 가서 변기물을 엮어져 먹 고 문을 수시로 열고 닫는 요란한 풍경 속에 겨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드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주님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생명 있는 동안 섬김의 소명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박현숙 전도사 / 소망의 집 원장

감사 편지 | 천사의 집

할 수 있는 것 기도뿐, 기도로 섬깁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천 사의 집입니다.

천사의 집에는 소외되고 오고 갈 곳 없는 35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 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발걸음도 줄어들어서 모든 식구들이 의기 소침해 있었던 차에 주님의교회에서 예쁘고 편한 옷을 성도님들이 정성스 럽게 세탁까지 하셔서 보내주셔서 다시 활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내오신 옷을 각자의 스타일대로 골라 입으며 거울 앞에서 한껏 멋을 내 고 있지요.

그동안 입었던 낡은 옷은 다 처리하고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옷을 아끼 며 잘 입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오니 기도하며 섬겨드리겠습니다. 목사 님과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순옥 원장 / 천사의 집

유유청청 소식 | 유아숲

〈대림절 말씀 스티커북 -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 발간

유아숲에서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대림절 말씀 스티커북 -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발간했다. 책 안에는 대림절 말씀 달력도 들어 있어 자녀들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또한 대림절 묵상집은 주님의교회 유아숲

어린이들 뿐 아니라 미자립 교회에도 전달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한 대림절을 맞이하였다. 대림절 말씀 스티커북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크고 특별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한다.

함글함글



사역 보고 | 장애인사역부

가을말씀사경회 “코로나 사태의 영적 교훈”

‘장애인사역부 가을말씀사경회’가 “코로나 사태의 영적 교훈”라는 주제로 11월 15, 22, 29일(주일), 3주간 초등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예배다부 예배시간을 통하여 40여 명의 장애인사역부 성도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올해 가을 말씀사경회는 전 영락농인교회 담임이셨던 강주해 목사님과 황바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시국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장애인사역부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강주해 목사님께서 농아인으로서 수어뿐 아니라 청인들과도

소통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싯딤나무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바다부 성도들은 농인들이 쓰는 언어인 수화로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말씀으로 더욱 깊이 나아감을 느꼈습니다.

가을말씀사경회를 통하여 말씀 앞에 머리숙인 장애인사역부 성도들과 봉사자들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으로 삼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장애인사역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글함글



주일설교 3분 메시지

주의 은혜

요한복음 1:15-18 / 김화수 담임목사

"주일설교 3분 메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됩니다."



목회 칼럼

말씀묵상으로의 초대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 따뜻했던 봄과 뜨거운 여름 그리고 시원한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속에서 코로나 여파로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든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힘겹게 버텨오신 교우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씀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묵상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읽기(讀)”입니다. 소리내면서 천천히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봅니다. 주어와 동사, 등장 인물이 누구인지를 표시해 가면서 저자의 심정을 깊이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적용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곰곰이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우작경탄(牛嚼鯨呑)”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고 고래가 한입에 삼키듯이 본문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되씹어보며 본문을 숙고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기(見)”입니다. 성경을 깊이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의 장소, 대화의 방식, 상황, 듣는 사람의 반응, 반복되는 단어 등 문맥을 유심히 관찰하다보면 평소에 느껴지지 않았던 본문이 깊이 다가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묻기(問)”입니다. 본문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 중심적 묵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느껴보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실한 묵상 방법입니다. 또한 내게 주시는 교훈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기록하는 마음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쓰기(記)”입니다. 묵상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거나, 감사와 기도문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김용택 시인은 「뭘 써요, 뭘 쓰라고요?」라는 책을 통하여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철학적인 삶의 태도라고 정의하며, 세상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길이 없었는데 자기가 걸어갈 길을 스스로 내는 일이 글쓰기라고 주장합니다. 다섯째는 “나눔(說)”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라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서로가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째는 “살기(行)”입니다. 몸으로 체득한 것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진짜 믿음은 말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결국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가며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대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묵상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종성 목사

독자 투고

사막

거친 곳이라 못난 곳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무리같은 모래능선들
깊이 숨은 도마뱀의 집
어린 새끼들을 품은 사막여우의 굴
보시기에 좋다 하시는
그분의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쓸모 없는 땅이라 버려진 흙이라
일کن지 않겠습니다
비겁한 다윗 못난 베드로
사랑하시어 버거우셨을 그들
그들이 없는 이곳에서
잠시 쉬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곳이라 굳어진 공허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여긴
사람의 반역으로 죽은,
신음하는 생명들이 안타까워
멀리 나와 우셨던 곳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살 수 없는 곳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마흔 날 마흔 밤
숨결같은 기도로 사셨던 이곳
그분의 생명이면
모래 알갱이 하나,
메마른 바람 한자락도
넉넉히 살아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땅이라 절망의 증거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밟으시는 땅
그분이 기억하시는 흙
어느 한 조각도
그날 벅찬 영광으로 빛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경상 안수집사



섬김과 나눔 소식

2020년 제8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섬김과나눔에서는 2020년 12월 13(주일)부터 27일(주일)까지, 성탄절 전후 3주간 동안 주님의교회 1층 로비에서 제8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개최한다.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개최하고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을 모금하여 코로나19 재난,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외 아동, 청소년, 무의탁 독거 어르신 등 불우이웃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섬김과나눔이 주관하고, 주님의교회 남녀선교회·안수집사회·권사회·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후원하며, 세이브더칠드런·기아대책·국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협력으로 펼쳐진다.

캠페인은 크게 “생명사랑 사랑의 털모자 전시회”와 “이웃사랑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 모금”으로 진행된다.

“생명사랑 사랑의 털모자 전시회”는 주님의교회 1층 로비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전시대를 설치하여 사랑의 털모자를 전시한다. 사랑의 털모자는 늘푸른대학 학생, 사랑의 털모자 뜨기 후원자 및 정신여고학년 학생이 제작, 후원한다. 전시회 후 사랑의 털모자는 세이브더칠드런, 호스피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웃사랑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 모금”은 교회 성탄절 헌금봉투를 이용하여 주일 헌금함에 넣거나 교회 헌금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접수된 후원금은 교내·외 각 50%씩 배분하여 전액 성탄절 불우이웃 돕기 지원금으로 사용하며, 교내 지원금은 교회 사역부서가, 교외 지원금은 (사)섬김과나눔이 각각 지원사역을 수행한다. 후원금은 코로나19 재난,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선교사, 미자립교회 및 교내·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무의탁 독거어르신 등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된다.

함즐함울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알립니다

코로나19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제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지혜롭게 이겨냅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겨자씨 모임을 합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오�히려 더 가까운 날들입니다. 온라인에서 삶과 말씀을 나눈 겨자씨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즐함울

알립니다

함즐함울 신춘문에 공모

함즐함울에서 제1회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개인 미디어 시대, 모든 생활과 소통은 영상과 같은 감각적 미디어와 카톡 식의 일회성 텍스트에 담겨질 뿐, 단어 하나의 선택에도 틈을 들이고, 썸표 하나를 찍는 데에도 고민하던 깊이 있는 문학의 공간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문학 청년들의 산실이었던 문예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랜 묵상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그리고 말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데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표현의 언어를 정갈하게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함즐함울에서는 주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소중한 덕목 가운데, 깊이있는 묵상과 창조적 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펼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공모 부문

- 시: 3편
- 수필: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 간증: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접수 마감

- 2020년 12월 10일 24:00

당선작 발표

- 각 부문별 1명을 당선자로 선정하여 2021년 함즐함울 신년특집호에 발표합니다.

보낼 곳

- hamletter@daum.net
- 메일 제목에 <함즐함울 신춘문예 응모작품>이라고 써 주세요.

응모 방법

- 응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된 일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작품 맨 끝부분에 이름, 생년월일, 직분,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로 작업하신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보출판부

알립니다

1. 유아세례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교육 : 12/13, 12/20(주일) 오후1시(zoom 실시간 온라인 교육, 총2회)
유아세례예식 : 성탄절예배(12/25)
문의 : 이창수 안수집사(010.5472.7059)

2.주일 설교 3분 메시지

담임목사님의 주일설교 3분 메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됩니다.

3.온라인 새가족 등록안내

- ①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받습니다.
- ②교회 홈페이지 새가족 등록 페이지를 통해 교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③담당 교역자가 주중에 연락을 드려 교회 및 새가족 양육을 안내해 드립니다.